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	2021. 12. 3. / (총 9매)	
인구정책총괄과 (총괄)	과 장	김 충 환	044-202-3370
	사 무 관	김 호 리	044-202-3408
출산정책과 (첫만남이용권)	과 장	손 문 금	044-202-3390
	사 무 관	권 혁 찬	044-202-3397
보육사업기획과 (영아수당)	과 장	홍 승 령	044-202-3560
	사 무 관	김 경 찬	044-202-3561
아동복지정책과 (아동수당)	과 장	김 현 주	044-202-3410
	사 무 관	신 하 늘	044-202-3429

영아기 첫만남꾸러미(영아기 집중투자) 지원사업 안내

-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“시간”(육아휴직 활성화)과 “비용”을 함께 ‘꾸러미’로 지원하여,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-

- ☐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‘영아기 집중투자’ 관련 법안·예산안이 12월 2일(목)부터 12월 3일(금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☐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·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, 아동수당, 영아수당 등이며,
 - ‘영아기 집중투자’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,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.

1 첫만남이용권 신설

- ☐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된다.

-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,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아동의 친권자·양육권자·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(친족,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이 신청할 수 있다.
 - 첫만남이용권 바우처(카드 포인트)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,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.
- 바우처(카드 포인트)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 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,
 - * 2022.1.~3월생의 경우는 2022. 4. 1. ~ 2023. 3. 31일까지 사용 가능
- 유흥업소, 사행업종,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.
-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,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.

2 영아수당 신설

- ☐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(0세 20만 원, 1세 15만 원) 대신 영아수당(0~1세 30만 원)을 받게 된다.
-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(0세반 약 50만 원)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(0세 20만 원, 1세 15만 원)을 통합한 수당(0~1세 30만 원)으로,

-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(가정양육 시)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, 보육료 바우처(어린이집 이용 시)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(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)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.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.

○ 현재는 0~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(0세 98.6%, 1세 85.4%, 2018년 기준)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,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
- 영아수당(현금)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,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(현금)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.

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

□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,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, 2018년 9월 소득·재산 기준 90%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.

○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*하여, 2022년부터는 「아동수당법」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** 된다.

* (경과) 2018. 9월, 소득재산 90% 이하 만 6세 미만 → 2019. 1월, 소득·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→ 2019. 9월,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

** (법률) 아동수당법 개정·공포(2021.12.2.)·시행(2022.4.1., 단 2022.1월분부터 소급 지급) / (예산) 2022년 국비 24,040억 원 (전년 대비 1,845억 원 증)

□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(2014.2.1. 이후 출생아동)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○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(2014.2.1.~2015.3.31. 출생아동)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~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*할 예정이다.
<붙임 3>

*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

※ 2015.4.1.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

<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>

	2014.2.1. ~ 2015.3.31. 출생아동	2015.4.1. 이후 출생아동
개정 전	2021.1월 ~ 2022.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	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
개정 후	2022.4월에 2022.1.~3월분(각 아동별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)을 소급지급 * '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	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

□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.

○ 다만,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~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(메시지)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.

○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,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.

○ 그러나,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,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- 2022년부터 신설·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(일시금 200만 원), 아동수당(월 10만 원), 영아수당(월 30만 원) 등 **영아기 집중투자**를 통해 **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**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
(2022.1.1~ , 임신 확인 시, 신청일 기준)

<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>

(단위 : 만원)

현행				'22년 이후				
연령	0세	1세	2~7세	연령	0세	1세	2~7세	
보육	시설미이용	가정양육수당 월20	지원 월15	월10	보육	시설미이용	현금 월30 ⇒ 월50 (22년) ('25년)	가정양육수당 지원 월10
	시설이용	보육료(바우처) 월48	지원 월48	월28 ~36		시설이용	영아수당 바우처 (보육료) 월50	보육료(바우처)지원 월26 ~ 월39
아동수당		아동수당 월10		아동수당		아동수당 월10(만 8세까지)		
출산지원금		정부지원 부재		출산지원금		첫만남 바우처 일시금 200		

* '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

○ 또한,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+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*(고용보험)과 함께 첫만남이용권, 영아수당,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,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**보전**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%월 150만 원 상한,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%(1 ~ 3개월간, 최대 월 300만 원) 지원

**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.6% → 2022년 54.0% 상승 효과
(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, 2021년 47.0% → 2022년 59.7%)

-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, ②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를 통해 **온라인 신청**도 가능하다.
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

-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·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.

<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 신청 방법 (온오프라인) >

- △ (온라인)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→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
- △ (주민센터 방문) 출생신고서 제출 시, 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·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

-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,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- 아울러, “영아기 집중투자가 일·가정 양립, 맞벌이·맞돌봄, 육아 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, ‘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’, ‘아동이 행복한 사회’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·기업·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
2.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
3.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

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

<div> <div> </div> <div> <div>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!</div> </div> </div>		
<div> <div>첫만남이용권</div> <div> <div>주요 내용</div> <div>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(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)</div> </div> </div>	<div> <div>영아수당</div> <div> <div>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지급(24개월)</div> <div>*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 시 지급</div> </div> </div>	<div> <div>아동수당</div> <div> <div>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('22~)</div> </div> </div>
<div> <div>적용 대상</div> <div>'22.1.1. 이후 출생아</div> </div>	<div> <div>'22.1.1. 이후 출생아</div> </div>	<div> <div>만 8세 미만 아동</div> </div>
<div> <div>지급 금액</div> <div>200만원</div> </div>	<div> <div>월 30만원</div> <div>* '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확대</div> </div>	<div> <div>월 10만원</div> </div>
<div> <div>지급 방식</div> <div> <div>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</div> <div>※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출업소, 사행,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가능</div> </div> </div>	<div> <div>계좌에 현금 입금</div> <div></div> </div>	<div> <div>계좌에 현금 입금</div> <div></div> </div>
<div> <div>지급 시기</div> <div> <div>'22.4.1.~</div> <div>※ 지급시기가 '22.4.1~ 임에 따라, '22.1~3월 생의 경우 '22.4.1~'23.3.31일까지 사용가능</div> </div> </div>	<div> <div>'22.1.25.~</div> <div>(매월 25일 지급)</div> </div>	<div> <div>'22.4.25.~</div> <div>(매월 25일 지급)</div> <div>※ 4월 지급 시, 1~3월분 소급 지급, '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</div> </div>
<div> <div>신청 시기</div> <div>'22.1.5.~</div> </div>	<div> <div>'22.1.5.~</div> </div>	<div> <div>'22.2월 중(추후안내)</div> </div>
<div> <div>신청 방법</div> <div> <div> <div>방문</div> <div> <div>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</div> <div>※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</div> </div> </div> </div> </div>	<div> <div>온라인</div> <div> <div>복지로 (bokjiro.go.kr)</div> <div>※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※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(온·오프라인 모두 가능)</div> </div> </div>	<div> <div>정부24 (gov.kr)</div> <div></div> </div>

※ 건강보험 임신·출산진료비도 지원금액 인상 (60 → 100만원), '22.1.1.~(임신 확인 시, 신청일 기준)
 ※ 아동 출생 전,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“국민행복카드”를 발급받은 경우,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(200만원) 지급
 ※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(월 50만원),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(9~180만원) 지급

붙임 2 영아기 집중투자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

□ 《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지원》 : ①첫만남이용권 및 ②영아수당 도입 ③ 아동수당 확대

○ 30대 직장인 김씨(男)는 내년 3월에 둘째 아이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. 첫 아이 때 100일, 첫걸음, 첫 웅얼이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기억이 너무나 아쉬워서 둘째 때는 첫 1년만큼은 꼭 함께할 생각으로 생애 첫 육아 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. 첫째 때는 가계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결심하지 못했는데,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이번에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.

- * 내년부터 전국 모든 출생아 대상 200만 원 일시금('첫만남 이용권') 지급(출생순위 무관)
- *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~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 지급(가정양육수당과 통합)
- *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(만7세 → 만8세) : 7살 첫째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으로 돈 쓸 일이 많아졌는데, 두 아이 몫으로 걱정 없이 매달 20만 원씩 추가 수령

일시금 200만 원에 더해 아이를 위한 매달 고정적 지원으로만 연 800만 원 이상에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고 하고, 다자녀 지원으로 공공이용료 부담할인 등 혜택도 확대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.

* 첫째(어린이집 보육료+아동수당 12개월분) + 둘째((영아수당=월30만 원*10개월) + 아동수당 10개월))
 ⇒ 첫째(400만원)=(어린이집 보육료(최소 월 28만 원*10개월분(3월 입소, 2개월 제외)) + 아동수당 (월 10만 원*12개월분)) + 둘째(400만 원)=(영아수당(월 30만 원*10개월분(3월에 태어나서 2개월 제외))+아동수당(월 10만 원*10개월분)) = 총 800만 원

첫째 때는 양육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혼자 육아휴직으로 고생하는 것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한데다, 첫돌을 지나자마자 어린이 집에 보내면서 너무나 미안했는데, 이번에 둘째는 물론 첫째한테도 그간 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.

붙임 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

* 청색 선 : 법 적용 대상 / 표시 : ○(지급), x(미지급)

지급 시기 생월	'21.9.	'21.10.	'21.11.	'21.12.	'22.1.	'22.2.	'22.3.	'22.4.	'22.5.	'22.6.	'22.7.	비고
'14.1월생	x	x	x	x	x	x	x	x	x	x	x	
'14.2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x	x	x	x	x	x	
'14.3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x	x	x	x	x	
'14.4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x	x	x	x	'22.4월 부터 중지
'14.5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x	x	x	'22.5월 부터 중지
'14.6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x	x	'22.6월 부터 중지
'14.7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x	'22.7월 부터 중지
'14.8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2.8월 부터 중지
'14.9월생	x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2.9월 부터 중지
'14.10월생	○	x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2.10월 부터 중지
'14.11월생	○	○	x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2.11월 부터 중지
'14.12월생	○	○	○	x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2.12월 부터 중지
'15.1월생	○	○	○	○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3.1월 부터 중지
'15.2월생	○	○	○	○	○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3.2월 부터 중지
'15.3월생	○	○	○	○	○	○	○ (4월에 소급지급)	○	○	○	○	'23.3월 부터 중지
'15.4월생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'23.4월 부터 중지